

[기윤실 토론회]

새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2

- 일시 : 2017년 5월 8일(월) 오후 7시 ~ 9시
- 장소 : 평화다방

시간	주제	담당자
19:00 ~ 19:10	토론회 취지, 순서자 소개	배종석 공동대표 기윤실, 고려대 경영학
19:10 ~ 19:30	세대갈등 프레임의 쓸모 광장의 대립을 세대 다툼으로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	전상진 교수 서강대 사회학
19:30 ~ 19:50	소수자와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교회와 기독교시민의 역할	백소영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사회윤리학
19:50 ~ 20:50	종합토론 / 질의응답	배종석 공동대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발제 1.

세대갈등 프레임의 쓸모

광장의 대립을 세대 다툼으로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

전상진 교수 (서강대 사회학과)

나는 세대사회학자다. 세대가 관심을 받을 때 내 연구도 주목받는다. '물썸 때는 나비잠 자다 물 들어야 조개 잡듯'한다는 속담이 있다. 때를 놓치고 뒤늦게 행동하는 게으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이다. 지금은 '물썸 때'다. 열심히 일할 때다.

광장의 소란은 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서로 으르렁대는 촛불과 반촛불로 광장이 가득하다. 촛불은 젊고 반촛불은 노숙하다. 고로 촛불과 반촛불의 대결은 세대들의 싸움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세대전쟁인지 의심스럽다. 물론 외관 상 그것은 젊은이와 어르신의 싸움처럼 보인다. 특히 반촛불 집회를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그곳에서 노인들은 정말 사회 전체와 상대한다.

광장 집회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참여 인원의 속성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여론조사가 밝혀낸 탄핵에 대한 연령별 의견으로 그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여러 조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은 20~30대에서 매우 높고(90% 이상)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50~60%). 둘째, 모든 연령층에서 인용 의견이 우세하다. 셋째,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대략 5배 정도 된다. 그에 비추자면 세대 대결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과장이다. 그렇다고 연령이나 세대에서 비롯한 차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분명 긴장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갈등이라 말하기도 민망하다.

세대갈등 프레임 말고 다른 틀로 광장을 살피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또는 법치주의와 반법치주의의 대립 프레임이다. 범법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촛불과 제대로 '엮인' 대통령을 구조하려는 반촛불의 싸움이 그것이다. 그것은 세대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세대 프레임은 대립하는 세대 성원의 상호인정을 전제한다. 갈등하는 두 세대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한다. 연장자 세대의 전횡에 맞서 새로운 미래를 열려는 연소자 세대의 저항 또는 젊은이의 일탈을 바로 잡아 사회를 수호하려는 어르신의 '질서 있는 제어.' 서로 싸우더라도 목표는 동일하다. 세대 공생이다. 젊은이가 늙은이의 억압에 저항하지만 목표는 그들의 제거가 아니라 그들의과의 평화로운 삶이다. 반대로 어르신이 나이 어린 녀석들의 방종을 다스리지만 목표는 그들의 제거가 아니라 유산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와 달리 민주·법치 프레임은 엄격하다. 공생보다 판결이 우선이다. 실제 행위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또는 적법한지를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따진다. 다수의 스모킹 건이 뿔어진 연기가 포 연처럼 자욱해진 지금, 대통령의 혐의는 의혹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에 정당성의 측면에서 촛불과 반촛불은 뚜렷하게 갈린다. 증거에 입각한 민주·법치는 애당초 음모론과 연민과 오만한 권력의지에 의존하는 반민주·반법치와 싸움을 벌일 필요조차 없었다.

어떤 프레임으로 광장의 소란을 보는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세대 프레임이 “상대방의 선의를 인정”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민주·법치 프레임은 원칙과 법의 위반 여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후자보다 전자에 여지가 많다. 갈등하는 세대들은 서로 싸우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한다. 상대가 자식이거나 부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의 질문이 필요하다. 광장의 대립을 왜 세대갈등으로 보려고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길까?

첫째, 반촛불 정치세력의 이익. 대통령과의 거리(“진박”, “골박”)가 정치적 프로그램인 세력은 대통령의 추락과 함께 힘을 잃었지만, 맞불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광장으로 진출하면서 부활하였다. 친박 세력은 민주·법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한다. 그것으로는 자신들을 도무지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갈등 프레임이 안성맞춤이다. 반민주적·범법 행위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세대의 의견(취향) 차이가 앞으로 나선다. 당신 세대의 의견을 존중할 테니 우리 세대의 그것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사실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도록 만든 후에 본격적 주장을 제시한다. 종북세력의 음모를 간파한 ‘우리 현명한 애국 어르신’과 그들에게 조종당해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젊은 녀석들’. 그렇게 판을 짬으로써 친박세력은 노인들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시대의 창, 2016)에서 장신기는 장·노년층이 진보를 멀리하고 보수에 애착을 느끼는 까닭을 복합적 소외로 규명했다.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그것도 수년째 압도적 1위다.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총체적인 소외의식”도 크다. 삶도 힘들고 사회적 무시도 참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퇴물 취급이나 당하고 살기도 힘들고 참.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 못할 거야.”

보수세력은 박정희, 육영수, 박근혜라는 아이콘을 통해 그들에게 자긍심을 제공하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소싯적에는 무려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했지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너무 버겁다. 반촛불 세력의 정치적 메시지는 그러한 노인들의 손상된 자긍심을 치유한다. 단지 ‘워안’ 것뿐이래. 어휴, 그럼 그렇지. 치유의 대가로 소외와 억하심정에서 비롯된 정치적 에너지를 지불한다. 그렇게 딜이 성사되었다. 노인들은 치유 수단을 받고, 정치세력은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 극단적 구호와 행동이 문제라고? 아니다.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사람들이 맞불 시민을 혐오하고 적대할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지지층도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친촛불 정치세력의 이익. 한국의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언제나 젊음과 진보에서 찾기에 노인들의 사정에 별반 관심이 없다. 특히 21세기의 크고 작은 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동원하고 결속하기 위해 늙음과 새로움, 늙은이와 젊은이의 대립을 이용했다. 그렇게 노인차별이나 혐오를 유포한다. 멀게는 2007년 대선 후보의 해프닝(“노인 분들은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가깝게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공직자 연령 제한의 제도화” 주장이 있다, 선거연령과 연령 제한은 모두 충분히 토론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만 그러한 논쟁적 사안들을 거의 같은 때에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된 지지층이 누구인지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백한다. 또한 친쑈불 정치세력은 젊은이들의 투표 독려에 주력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프로그램이 특정 연령층만을 조준하지 않는 데도 그런다. 어차피 노인은 보수를 지지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청년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다. 박력은 인정, 그러나 참 아둔하고 무모한 박력이다. 이미 궤도에 안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그렇다.

광장의 소란을 세대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세대들의 싸움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곧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게다가 노인 혐오와 차별도 키운다. 혐오와 차별은 어르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강하고 독하게 만들어 그들의 고통을 착취하는 정치세력의 배만 불릴 것이다. 대응역시 더 강해지고 독해질 것이며, 노인 혐오와 차별역시 더 세질 것이다. 그렇게 소외와 혐오와 적대의 악순환이 공고해질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정치의 목표라지만, 현실 정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착취할 수 있는 갈등이라면 오히려 독려한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역 차이를 지역갈등으로 ‘제도화’(“우리가 남이가”)하였다.

요즘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가짜 세대전쟁’도 걱정해야 한다. 싸울 일이 아님에도 싸움을 부추겨 잇속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방심하면 가짜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된다. 광장의 소란이 진짜 세대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록 내가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먹고사는 세대사회학자일지라도 

발제 2.

소수자와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교회와 기독교시민의 역할

백소영 교수(이화여대, 기독교사회윤리학)

1. 촛불과 탄핵,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기

우리 집도 예외 없었다. 인품 좋은 분들이고 사는 동안 크게 언성을 높여 싸울 일이 없었던 친정 부모님 과도, 시댁 부모님과도, 여지없이 한판 붙었다. 계기는 촛불집회에 아들이나 데리고 갔다가 찍은 인증샷 때문. 이후 시어머님은 태극기 집회를 빠짐없이 참석하시며 인증샷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다. 이 일을 계기로 양쪽 어른들의 연대가 급격하게 두터워졌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 슬픈 나라에서 이젠 가족 간에도 양분되는 가슴 아픈 갈등을 보며 "세대 차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발제는 전상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실 터라, 나는 같은 현상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풀어보려 한다.

'여성주의'는 현 체제 밖의 시선이고 사유이고 언어이다. 모든 '여성'이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 해도 가부장제를 관통하면서 남성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순응했다면, 아니 오히려 적극 가담해서 한 자리 차지했다면 그녀들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되 은유로는 '남성'이다. 때문에 '여성주의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여성'이나 구성적 특성으로서의 '여성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스템 안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떤 것,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바깥'의 의미이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남성'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는 '약육강식'의 동물적(실은 동물이 더 낫다. 배고프지 않은데도 잡아먹는 건 인간 사회뿐) 시스템이 21세기 신자유주의적 고용유연성의 관료제적 자본주의와 만나니 체제 밖으로 배제된 것은 비단 여성만이 아니게 되었다. 현재 '남근중심적'(공격적, 경쟁적, 이성적, 효율적, 기능적, 개별적 혹은 조직이기주의적) 사회구조는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자리를 차지한 소수가 권위를 독점하고 자기들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종류와 속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오천 년 가부장 역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 있으나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한 바 없고 그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 위치 역시 스스로 결정한 바 없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를 "여성주의"라고 부른다면, 시스템 바깥에 배제된 남성들도,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이름을 달리 부를 수도 있다. '보편주의' '평등주의' '無/脫 계급주의'... 그러나 이제껏 공적 테이블의 합의와 결정방식에 자신들의 의미가 반영된 바 없었던 '소수자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대변하기에 "여성"만큼 적절한 이름이 또 어디 있을까.

2.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답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마주보기를 원했다. 계급장 떼고, 성별 떼고, 나이 구분 떼고, 모두가 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전하는 일을 축제처럼 즐겼다. 어이없는 일은 이를 위협으로 여긴 사람들이 비단 위계적 리더십을 독점한 상층부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권력도 부도 가지지 않은 '어르신들'은 촛불 정국을 낚설어 했고, 나아가 불안해했다. 소위 6.25세대라는 그들의 공동기억도 한몫 했을 것이고, 산업화 세대라는 그들의 '업적'이 부정당하는 느낌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부정하고 뒤흔들다니! '어르신들'의 분노는 그들이 성취했고 정당하다고 믿는 위계가 전

복된 것(혹은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통치자와 시민(거의 '신민'),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를 '위계'로 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빠짐없이 '태극기'쪽에 섰다. 어디 '감히' 시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나. 이들은 이미 '정답'을 가진 집단이다. 도대체 탄핵 정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동성애 이슈가 불거졌을 때에도 이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이성애를 정답으로 외쳤다. 사람들의 관계 방식에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정답을 가진 쪽이 '자신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다름'이 드러나거나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열린 토론이 불편하고 불안한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공간은 다름 아닌 '사이' 공간이다. 너와 내가 'n분의 1'의 권위를 가지고 마주본 채, 서로의 '다름'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서로 의미 있게 마주본 둘이라면 결국엔 중간지점이든 전혀 다른 답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관계적 혁명의 공간. 그 '사이'를 가져본 적 없는 이들은 답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응시했던 이들의 의미 표출에 분노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우리는 내일 있을 투표 결과에 승복하며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의사 결정이 있기까지 우리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들을 가능하면 '모두' 마주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내 답과 다르다면 갈등하는 과정도 '악'이 아니다. '소수자' '약자'라는 말은 반드시 수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심지어 그 수가 많더라도 공적 결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그들의 의미가 들려진 적도 반영된 적도 없었다면, 그들은 '소수자'요 '약자'다. 그동안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던 딸이요 며느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언성을 높인 일이 공동체의 파괴요 인권을 저버린 행동이라 여기는 한, 우리는 결코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공동체적 살기 방식'을 향해 근접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3.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안타까운 현실은, 가장 작은 자의 의미까지도 살뜰하게 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갈등의 주요 진원지라는 사실이다. 지인이 태극기 집회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왜 저기에 미국 국기와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설명하느라 애썼던 기억이 있다. 역사적 우연성으로 결합되었으나 비본질적인 '패키지'는 해체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면, 잃은 양 한 마리까지 기어이 찾아와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그 사랑은 어찌 다투려하지 않는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힘없는 사람들의 의미에는 왜 귀 기울이지 않는지. 예수는 가부장제와 제국이 만들어 놓은 권위의 위계가 정점에 달해있던 시절에, 모두가 형제자매로서 서로 마주보는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사신 분이다. 그 관계적 혁명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찌 자고 오늘날의 교회는 또 다시 가부장제와 제국의 위계를 닮아가나. 아니, 오히려 더 앞장을 서나. "네 말이 옳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작고 작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옳다하시고 그들의 삶의 해석을 받아들이신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소수자·약자와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기독교 시민의 첫 역할은 자명하다. 나와 다른 답을 가진 이들을 초청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의미를 듣는 일! 단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지 못한 사람들(내가 실재요 은유로서의 '여성'이라고 말한)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야한다. 그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도 발랄하게 무대 위로 뛰어올라왔던 어느 이름 모를 초등학생, 아기 엄마, 노점상인, 그들이 의미가 충분히 들리지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안정, 성장, 효용성... 이런 이름으로 생명을 버리는 제도와 정책은 '반(反)하나님적'이다. 그러니 교회의 이름으로, 신자의 이름으로 싸워야하는 것은 이제껏 교회의 공적 담론이나 교리에 반영된 적 없었던 소수자나 약자의 '낮선 의견들'이 아니다. 싸워야 할 우리들과 연대를 하고, 듣고 품어야 할 이들에게 칼을 빼드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쳐야하지 않겠는가. 